# 출장보고서

2024. 3. 26

KDI 한국개발연구원
Korea Development Institute

## 1 출장 목적

□ OECD WP1(거시경제 및 구조적 정책분석) 회의 참석

○ 안건 검토(인공지능(AI)의 경제적 영향, 고령화 사회에서의 생산성 및 성장 증진 방안, OECD 경쟁력 지표에 대한 논의, 기후 변화 적응 전략, 녹색경제에서의 노동시장 전환 및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 등) 및 논의

## 2 출장 개요

□ 출장지 및 기간

○ 출장지: 프랑스 파리

○ 출장기간: '24년 3월 20일(수) ~ 3월 23일(토)

○ 출장자: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 연구위원

○ 예산과목: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

## 3 출장 일정

| 일자 | 시간 | 주요일정(안) |
|---|---|---|
| 3.20(수) | 13:07 ~ | 인천공항 출발 |
| | ~ 19:48 | 파리공항 도착 |
| 3.21(목) | 09:30 ~ 18:00 | WP1 회의 (1일차) |
| 3.22(금) | 09:30 ~ 16:15 | WP1 회의 및 후속 논의 (2일차) |
| | 21:08 ~ | 파리공항 출발 |
| 3.23(토) | ~ 17:06 | 인천공항 도착 |

* 현지 시간 기준임.

* 숙박호텔: Hôtel Maison FL
  - (주소) 6 Rue de la Tour, 75116 Paris, France (전화) +33 (0) 1 55 74 75 75
    (이메일) info@maisonfl.com

## 4 기타 사항

□ 교통비
 ㅇ 항공료, 항공수수료, 여행자보험료: 실비정산
 ㅇ 왕복 국내교통비(KTX, 공항철도 및 공항버스 이용): 사후 실비정산

□ 숙박비: 사후 실비정산
 ㅇ 도시세: 사후 실비정산
 *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장소인 OECD와 가까운 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며, 이에 따른 현지 물가를 고려하여 숙박비 기준 150% 내에서 집행하고자 함.
 * 다만, 현지 물가와 환율 변동에 따라 숙박비가 다소 초과될 수 있음.

□ 식비: 기내식 4식, 간담회 2식, 조식 2식 제외

□ 간담회비 신청

□ 국제로밍서비스: 미신청



## 4 활동 내용

**Round 1. Opening and adoption of the agenda**

### Ⅰ. 안건 주요내용

□ OECD(경제협력개발기구)의 경제 부서 및 경제 정책 위원회가 2024년 3월 21일~22일 OECD 컨퍼런스 센터(프랑스 파리)에서 개최한 제1차 거시경제 및 구조정책 분석 작업반 회의 내용

ㅇ 인공지능(AI)의 경제적 영향, 고령화 사회에서의 생산성 및 성장 증진 방안, OECD 경쟁력 지표에 대한 논의, 기후 변화 적응 전략, 그린경제의 노동시장 전환 및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해 논의함.

ㅇ OECD는 AI 발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, 생산성과 노동 시장 변화, 기후 변화 대응 전략 및 포용적 성장 전략 개발을 주요 연구 분야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힘.

ㅇ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과 정책 제안을 제공할 계획

ㅇ 연구와 관련하여 국가별 작업과 국가 간 작업 모두 유용할 것으로 기대
 - 각 국가에 매우 유용한 framework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
 - 각 국가별로 강점 및 약점을 식별함으로써 개혁의 기회를 제공하고, 개선이 필요한 영역은 OECD가 도움 제공

## Round 2. The Econom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

### Ⅰ. 안건 주요내용

□ 인공지능(AI) 개요

- ㅇ AI는 자율성과 자가 개선 능력을 바탕으로 경제 생산성과 사회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일반 목적 기술
- ㅇ AI 인프라는 칩, 연결성, 하드웨어 등을 포함하며, 이들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구성함.

□ AI의 발전과 영향

- ㅇ 초기 AI 적용은 특히 지식 집약적 서비스 부문에서 생산성과 성능을 상당히 향상시켰으나,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 효과는 여러 조건에 의존하여 여전히 불확실
- ㅇ 최근 AI는 텍스트, 이미지, 비디오 콘텐츠 생성을 넘어 복잡한 예측, 결정, 최적화 문제를 돕는 분석적 AI로 발전함.
- ㅇ AI는 인지적 작업뿐만 아니라 로봇과 결합 시 물리적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.
- ㅇ (AI와 기술적 자율성) AI는 초기 학습 단계와 장기적으로 자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 AI 모델 설계를 돕는 긍정적 피드백 루프의 가능성을 가짐.

□ AI와 기존 기술의 비교

- ㅇ AI는 스팀 엔진, 전기, 컴퓨터, 인터넷 등 이전 주요 기술과 비교해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됨.
- ㅇ AI는 내용 생성, 다양한 인지적 작업에 영향을 미치며 자율성과 자기개선의 가능성을 가짐.



□ AI의 경제적 효과

- ㅇ AI는 혁신 촉진제로 작용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, 이는 국가 및 기업 수준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  - AI의 경제적 영향은 AI가 인간의 기술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크게 달려 있으며, 이는 AI 사용의 긍정적인 경제적 결과를 낳을 수 있음.

□ AI의 과제

- ㅇ AI 기술의 거시경제적 영향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,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현 가능함.
- ㅇ AI의 발전은 성과 격차를 심화시키고 광범위한 일자리 자동화로 이어질 가능성
  - AI는 일부 부문에서 노동을 대체할 위험이 있으며, 이는 낮은 생산성 부문으로 노동 이동을 초래할 수 있음.
- ㅇ AI가 인간을 보완하는 기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.

□ AI의 사회적 영향

- ㅇ AI는 지식 집약적 서비스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치며, 이는 금융, 전문 서비스, ICT 등 높은 생산성 성장 분야를 포함함.
  - AI가 지식 집약적 업무에서 자동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, 동시에 인간의 역할을 보완하는 새로운 작업의 창출도 가능함
- ㅇ AI의 시장 경쟁과 역동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존재함.

□ AI 관련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

- ㅇ AI의 발전과 채택을 위해서는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함.
  - 정책 입안자들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, 접근성을 향상시키며, 일자리 변화 및 불평등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.

- 빅테크 기업에서의 AI 개발 집중, 불균등한 채택률, 그리고 불평등, 차별, 보안 위험과 같은 사회적 도전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 접근 필요

ㅇ OECD 국가들은 AI 개발과 채택을 안내하기 위한 원칙 마련 필요

## Ⅱ. 논의사항

□ 논의를 위한 질문

ㅇ AI의 경제적 도전에 대해 연구하는데 제안된 framwork에 동의하는지

ㅇ 장기적인 AI의 거시경제적 생산성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향후 작업에서 제공하는 것이 유용한지

ㅇ 향후 작업으로 AI가 제기하는 경쟁 문제를 다룰지

□ AI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요약

ㅇ (AI의 경제적 불확실성) 참석자들은 AI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토론하며, 특히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생산성에 대한 AI의 기여에 대해 의문을 제기

- AI의 영향력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.

ㅇ (AI와 노동 시장) 참석자들은 AI가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

- AI의 도입이 경험이 많은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에서 신규 근로자가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업 내 임금 분포를 압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됨.
- 이는 노동 시장의 경쟁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, 동시에 고용주가 직원을 더 쉽게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 임금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음.



ㅇ (AI와 경쟁) AI와 관련하여 경쟁 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음.

- 기술 변화가 경쟁을 약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.
- 특히 AI 시장 내 경쟁과 AI의 투입 요소, AI가 사용되는 시장에서의 경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존재
- 시장에서 '승자 독식'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이는 경쟁과 경제적 역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

## Round 3. Enhancing Productivity and Growth in an Aging Society: A scoping paper

### Ⅰ. 안건 주요내용

□ 고령화 사회의 생산성 및 성장 증진

ㅇ 인구 고령화는 OECD 국가들의 인구 구조와 경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예정

ㅇ 인구 고령화는 노동 공급 감소, 공공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 등 다양한 도전 과제 제시

□ 고령화의 주요 원인 및 영향

ㅇ 평균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는 인구 고령화의 주요 원인

ㅇ 고령화는 1인당 생산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, 관련 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음.

- OECD 국가들의 인구 통계적 추세를 기록하고, 이러한 추세가 1인당 생산량의 공급 결정 요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framework 제시

□ 고령화 정책 대응

ㅇ 고령화 정책은 건강한 노화 지원, 고령 근로자의 고용 증진, 직업의 질 개선, 노동 이동성 증진 등에 초점

ㅇ 노동 시장에서 여성과 청년의 통합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

□ 향후 연구 분야

ㅇ 고령화가 다양한 산업과 사업 동력에 미치는 영향, 자동화 기술(AI 포함)의 잠재적 기여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



### Ⅱ. 논의사항

□ 논의를 위한 질문

ㅇ 노동 자원을 더 잘 활용하고, 직업의 질 향상과 자동화를 통해 1인당 GDP 증가에 대한 고령자의 기여는 어느 정도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가?

ㅇ 고령화 사회는 사업 동력과 혁신 능력을 잃을 위험이 있는가? 만약 그렇다면, 고령화 정책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?

ㅇ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의 격차는 무엇인가?

ㅇ 고령화 사회는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기반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가? 혹은 고령화 사회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과 경제 구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?

□ 고령화 사회의 생산성 및 성장 증진에 대한 질의응답 및 토론 요약

ㅇ (고령화의 경제적 영향) 고령화는 OECD 국가들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중대한 경제적 도전

- 1990년 대비 2050년 예측에 따르면 45세 이하 인구 비율이 대폭 감소하고,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크게 증가할 예상

- 고령화로 인해 노동 생산성 및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이며,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이 모두 가능함.

ㅇ (노동 시장 변화) 고령 인구의 노동 시장 참여율 증가와 더불어,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혼합된 결과를 보임.

- 특정 직업군에서 고령 노동자의 생산성이 젊은 노동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지 않음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음.

ㅇ (정책 대응 전략)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정책으로는 건강한 고령화 촉진, 평생 학습 지원, 이민 정책 강화,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대 등이 있음.
- 일본의 경우,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절약형 기술 도입 및 고령 노동자의 노동 시장 참여 증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공유함.

ㅇ (기타) 참석자들은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 토론함.
- 이민 정책의 재고,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 증대, 고령 노동자의 노동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등이 제안됨.
- 또한, 고령화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과 공유 경험의 중요성이 강조됨.

ㅇ (결론) 고령화는 OECD 국가들에게 공통적인 도전이며,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정책 접근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함을 재확인함.
-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 증대, 기술 투자, 건강한 노동 생활의 연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고려될 필요



# Round 4. Getting Competitive A scoping note on an OECD Competitiveness Indicator

## Ⅰ. 안건 주요내용

□ "OECD 경쟁력 지표"는 경쟁력 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해 을 통해 이니셔티브를 통해 경쟁력을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

ㅇ OECD 경쟁력 지표 접근 방식은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를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드는 정책 framework를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측정하려는 시도

ㅇ (경쟁력 개선을 위한 새로운 지표 도입 필요성) 현재의 경쟁력 지표가 국가들의 경제 성장 및 발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, 이를 보완할 새로운 경쟁력 지표 도입의 필요성 강조

ㅇ (새로운 경쟁력 지표의 제안) 기존 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의 다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 개발에 대한 제안
- 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, 혁신 능력, 사회적 포용성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함.

ㅇ (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한 기준 설정) 새로운 지표 개발에 앞서 각국의 경제 상황, 산업 구조,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의 중요성 강조
- 이와 같은 기준 설정을 통해 보다 맞춤형이고 실질적인 경쟁력 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

ㅇ (정책적 시사점 및 전략 수립) 새로운 경쟁력 지표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, 이를 통해 각국이 직면한 경쟁력 약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

ㅇ (국제 협력 및 공유) 새로운 경쟁력 지표의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
- 다양한 국가들과의 지식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경쟁력 지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.

## Ⅱ. 논의사항

□ 논의를 위한 질문

ㅇ 제안된 framework에 동의하는가?
ㅇ 각국에서 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 주요 측정 및 통계적 도전은 무엇인가?
ㅇ 경쟁력에 대한 주요 정책 이슈는 무엇인가? 우리가 강조해야 할 다른 경쟁력의 요소나 영역이 있는가?

□ 새로운 경쟁력 지표에 대한 질의응답 요약

ㅇ 참석자들은 새로운 경쟁력 지표 개발의 필요성, 기대 효과,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질문하고,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.

- (Q1) 새로운 경쟁력 지표의 개발 과정에서 각국의 경제 상황과 산업 구조의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?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를 고려한 평가가 가능한가?
- (A1) 새로운 지표 개발 시, 국가별 경제적, 사회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중치 및 조정 계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함.



또한, 개발도상국의 성장 잠재력과 선진국의 지속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부지표들을 포함하여 국가 간 비교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.

- (Q2) 새로운 지표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? 구체적인 예시?
- (A2) 예를 들어, 새로운 경쟁력 지표를 통해 특정 국가가 혁신 능력이나 사회적 포용성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면, 해당 국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수 있음. 또한, 지표를 통해 성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조정을 가할 수 있음. 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.

- (Q3) 새로운 경쟁력 지표의 국제적 비교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있음. 각국의 문화적, 사회적 가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?
- (A3) 문화적,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, 우리는 국제 협력과 전문가 집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강화할 예정.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음. 또한, 각국이 자체적으로 지표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

- (Q4) 새로운 경쟁력 지표가 도입된 후, 이를 기반으로 한 국제 순위가 국가 간 경쟁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
- (A4) 새로운 경쟁력 지력 지표의 목적은 국가 간 경쟁을 부추기기보다는 각국이 자신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음. 국제 순위는 국가들

이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, 이는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. 또한, 순위는 단순히 상위권 국가들만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각국의 진전과 노력을 인정하고,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모든 참여국이 서로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 결국, 새로운 경쟁력 지표의 도입은 국가 간 협력과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함.

○ (향후 방향) 새로운 경쟁력 지표 개발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첫걸음이며,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경쟁력 평가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.
- 또한, 국제적인 협력과 공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.



## Round 5. Accelerating Climate Adaptation: Towards a Framework for Assessing and Addressing Adaptation Needs and Priorities

### Ⅰ. 안건 주요내용

□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 전략과 정책 설계

○ 기후 변화의 경제적,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, 적응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안 위험 감축 노력을 계속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

○ 기후 변화에 따른 재정적 및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거시경제적 및 재정 계획에 기후 위험을 반영해야 함.
- 경제적, 사회적 측면에서의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상당하며,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적응 조치가 필요

○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통합하고 정책 권고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세 가지 주요 단계 : ① 지역별 기후 위험 식별 및 정량화, ② 적절한 적응 조치 식별, ③ 적응 정책 계획 및 이행

○ (적응 조치의 식별과 우선순위 설정)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, 적응 조치를 식별하는 과정은 경제 및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획하는 데 필수적
- 이는 기술적 조치, 인프라 계획, 행동 및 조직 변화, 구조적 경제 조정 등 다양한 적응 조치를 포함함.

○ (적응 정책의 고려 사항) 적응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 필요

- 이는 경제적 수단, 정보 제공, 규제를 포함하며, 때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

ㅇ (적응 계획의 설계 및 이행) 적응을 위한 기관적 프레임워크, 책임의 명확한 할당,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이행이 중요함.
- 적응 계획은 국가별 위험과 맥락에 맞춰진 국가 비전을 구축하는 데 도움

## Ⅱ. 논의사항

□ 논의를 위한 질문
ㅇ 제안된 접근 방식에 동의하는가?
ㅇ 적응에 대한 주요 정책 이슈로 무엇인가?
ㅇ 정부들이 기후 변화 적응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, 정부는 향후 어떤 작업이 유용하고 가치가 있는가?

□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요약

ㅇ (기후 변화 적응) 기후 변화 대응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
- 여러 국가들이 적응 법안, 전략,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함.

ㅇ (적응 전략의 필요성) 기후 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 적응 조치가 필요
- 각국은 이미 경제적 손실을 경험하고 있으며,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요구



ㅇ (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) 기후 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한 논의
- 민간 부문의 참여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 인센티브 제공의 중요성이 논의
- 특히, 적응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

ㅇ (적응 전략의 효율성) 적응 전략과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-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, 과학적 데이터와 예측을 기반으로 한 적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
- 이를 위해 정확한 위험 평가와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

ㅇ (국제 협력의 중요성) 기후 변화 대응은 국제적인 협력 필요
- OECD와 같은 국제 기구들은 각국의 노력을 지원하고 최선의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.

ㅇ (재정적 지원과 기술 이전) 개발도상국과 취약국가들이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
- 재정적 지원 및 기술 이전을 통해 이들 국가가 자체적인 적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

□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토론 결론

ㅇ (적응 정책의 다각화) 회의 참가자들은 기후 변화 적응 정책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함.
- 농업, 수자원 관리, 도시 계획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적응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

○ (정책의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) 적응 정책과 전략은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.
- 변화하는 기후 조건과 과학적 이해에 기반하여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

○ (국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촉진)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참여 촉진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
- 이를 통해 적응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,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.

□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향후 방향

○ (국가별 적응 전략 공유 및 벤치마킹) 각국은 자국의 적응 전략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, 다른 국가들의 전략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 적용할 수 있음.

○ (정기적인 평가) 적응 전략과 정책은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, 새로운 과학적 발견이나 기술 발전에 맞추어 전략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해야 함.

○ (국제 협력 및 파트너쉽 강화) 기후 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므로, 국제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동의 적응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

○ (시민 참여 및 교육 촉진) 기후 변화 적응 노력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강화해야 함.



# Round 6. Labour markets transitions in the greening economy: Structural drivers and the role of policies

## Ⅰ. 안건 주요내용

□ 녹색 경제로 노동 시장 전환

○ 녹색 경제로의 노동 시장 전환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'브라운(brown)' 직업에서 환경 목표를 지원하는 '그린(green)' 직업으로의 일자리 이동을 수반할 것으로 예상
- 브라운 일자리 축소와 그린 일자리 증가는 노동 시장에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함.

○ 노동 시장에서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고용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이 필요
- 예를 들면 녹색 업무 수행을 위해 노동자들을 이동시키거나 오염 산업에서의 일자리 손실 및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필요

○ 유럽 국가들의 대규모 샘플을 기반으로 실증분석 결과 교육이 녹색 일자리로의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.
- 특히 젊은이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때 과학, 기술, 공학, 수학(STEM) 분야 교육이 녹색 직업을 얻는 데 큰 영향을 미침.

○ 기술, 연령, 성별, 거주 지역별로 노동 시장 전환에 대한 구조적 및 정책적 요인 분석

-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녹색 일자리로 전환할 가능성이 훨씬 적으며, 이는 성별 격차를 의미함.
- 실업과 관련하여 브라운 일자리의 근로자들이 비브라운 일자리 근로자들보다 해고 위험이 더 높으나, 장기 실업 위험은 더 높지 않았음.

ㅇ (정책 시사점) 실증분석 결과에서 비고용 노동자들의 고용 전환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책 및 기관이 그린 일자리 고용으로의 전환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음.

## Ⅱ. 논의사항

□ 논의를 위한 질문

ㅇ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는 무엇인가?

ㅇ 녹색 일자리와 관련된 기술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

ㅇ 젊은이에게 STEM 관련 학문 분야를 선택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법은 무엇인가?

ㅇ 고오염 일자리의 노동자와 커뮤니티를 돕고, 녹색 일자리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?

ㅇ 녹색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정책과 일반적인 노동 시장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무엇인가?

□ 녹색 일자리 전환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요약

ㅇ 토론자들은 이 연구의 방법론과 접근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, 녹색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시장 동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봄.
- 특히 교육과 기술 훈련의 중요성, 녹색 일자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함.



- STEM 교육과 지속 가능한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함.

ㅇ 몇몇 토론자들은 녹색 일자리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함.
-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녹색 전환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,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경제정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.

ㅇ 성별 격차 문제에 대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도전과 기회를 평가하고,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.
- 여성의 녹색 일자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

ㅇ 연구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에서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이 단기적인 고용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성장, 지속 가능성, 사회적 포용성 측면에서도 중요
- 녹색 전환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과 광범위한 정책 협력이 필요함.

□ 향후 방향

ㅇ 녹색 경제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, 성공적인 녹색 일자리 전환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개입과 전략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필요
- 특히 교육 및 훈련, 기술 혁신, 노동 시장 정책의 조정, 지역 경제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

ㅇ 향후 논의와 연구는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,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며,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

-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과 대화가 중요하며, 정책 결정 과정에 있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 방식이 필요

ㅇ 참가자들은 녹색 전환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강화, 기술 혁신 및 연구 개발 지원 확대, 노동 시장의 유연성 및 포용성 증대, 지역 경제 지원 정책의 개발 등을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시

ㅇ 또한 녹색 경제 전환 과정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, 젊은 세대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기회 확대, 녹색 기술과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유도를 위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협력 강화가 필요



# Round 7. Digitalisation of financial services, access to finance and aggregate economic performance

## Ⅰ. 안건 주요내용

□ 디지털 금융의 역할과 중요성

ㅇ 디지털화가 경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있으나,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가 재정적 마찰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 생산성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.

ㅇ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가 특히 재정적 마찰이 큰 부문(예: 무형 자산이 많은 산업)에서 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.

□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 측정

ㅇ 기존에는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 진전을 추적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했으나, 본 연구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소비 및 투자를 포함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함.

ㅇ 이 지표는 ICT 소비, 빅 데이터, 인공 지능 투자 등을 포함하여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 수준을 나타냄.

□ 디지털 금융과 생산성 성장의 관계

ㅇ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10% 증가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.

ㅇ 결과적으로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노동 생산성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
ㅇ 이러한 긍정적 영향은 특히 무형 자산이 많은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나며, 이는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가 더 효율적인 신용

배분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임.

□ 정책 및 구조적 결정 요인

ㅇ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구조적 요인들을 논의함.

ㅇ R&D 증가, 규제 및 법률 체계 개선 등이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, 이를 통해 생산성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음.

## Ⅱ. 논의사항

□ 논의를 위한 질문

ㅇ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가 가계와 기업의 금융 제약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다른 요인은?

ㅇ 디지털 인프라, 경쟁, 연구개발(R&D) 지출, 기술 교육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은? 금융 부문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는?

ㅇ 디지털 금융이 기업의 전략, 투자 및 녹색 기술 채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? 가계에 대한 금융 포용성 측면에서 디지털 금융의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는지?

□ 디지털 금융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요약

ㅇ (금융 부문의 구조적 특성) 금융 부문의 구조가 국가별로 다르며, 이러한 차이가 디지털화의 영향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.

ㅇ (비용 및 투자의 정확성) 디지털화 지표가 국가별로 상이한 특성을 캡처하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.

- 특히 일부 국가의 금융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투자가



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, 다른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관찰됨.

ㅇ (정책적 영향 및 미래 연구 방향) 디지털 금융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제안과 함께 향후 연구에서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.

- 특히 금융기술(FinTech)의 발전이 중소기업(SME) 및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

ㅇ (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의 디지털 금융 동향 분석) 일부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디지털 금융의 변화가 기존 연구와 어떻게 다른지, 특히 비용 절감 및 금융 중개의 단위 비용 변화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의 중요성을 지적함.

ㅇ (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사회적 수용성)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확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, 특히 디지털 배제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.

-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.

ㅇ (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 평가의 정확성) 인공 지능과 빅데이터가 금융 부문에서 신용 평가 및 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.

- 이러한 기술이 기존의 편향을 강화할 위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.

ㅇ (디지털 금융의 환경적 영향) 디지털 금융이 녹색 전환 및 지속 가능한 금융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.

-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에너지 효율성, 친환경 투자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

□ 주요 제안 사항

○ (금융 부문의 구조적 차이를 고려한 분석) 국가별로 금융 부문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, 이러한 차이가 디지털 금융의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

○ (디지털 금융의 사회적 수용성 강화)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확대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, 디지털 배제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

○ (신용 평가의 정확성 및 편향 문제 해결)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 평가가 기존의 데이터 편향을 강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, 이를 위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

○ (녹색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금융의 활용) 디지털 금융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 전환을 촉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및 정책 개발이 필요

○ (정책 및 규제의 발전) 디지털 금융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, 관련 정책 및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